

전남도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총력

WHO 한국 백신 허브 지정 따른 보건복지부 추진 인재양성 사업 바이오 인력양성 협의체 구성하고 화순군·9개 대학과 업무협약

전남도가 세계보건기구(WHO) 인력 양성사업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의 전남 유치를 위해 9개 지역대학과 바이오 인재양성 서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서면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에는 전남도와 화순군,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초당대, 한국에너지공과대, 전남대, 조선대,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전남 유치에 적극 협력하고 기관이 보유한 바이오 교육 시설과 기숙사, 연구진 및 기술 교류 등 우수 기반 시설을 국내외 바이오 인력양성에 공동 활용하게 된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은 지난해 2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가 간 백신 불평등 완화를 위해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인재양성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주 캠퍼스 선정을 위한 지자체 공모에 들어갔으며 6월 2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한다.

전남도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전남 유치를 위해 지난 2월 '전남 바이오인력양성 협의체'를 구성한데 이어 다국적 바이오 기업과 업무협약을 하는 등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은 전국 유일의 백신산업특구에 백신 연구 개발과 생산, 품질관리, 인증, 해외규제교육 등 전주기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백신 교육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생물 의약품연구센터와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식품 의약품안전처), 국가미생물실증지원센터(산업통상자원부) 등 최고의 백신 교육기관과 협력해 지역 바이오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수 인재 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남이 백신산업특구의 우수 기반 시설을 활용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유치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적 바이오 인재 양성 거점이 되도록 전남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5월부터 취업 준비생 24명을 선발해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을 하고 하반기엔 지역 대학생과 고교생 380여 명에게 바이오의약품 실습교육과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바이오 인재양성에 본격 나서고 있다. 10월에는 외국인 교육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생산공정 현장실습을 진행할 예정으로, 세계적 바이오 인재양성 거점이 될 준비를 착실히 다지고 있다.

한편 전남 백신산업특구 내에는 생물약연구센터, 천연물원료의약품플랜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등의 교육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인재교육진흥원, 신안서 '찾아가는 특강'

기서진 'AI 기반 환경보전' 강연

전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멘토를 초청해 찾아가는 특강 '꿈틀'을 지난 17일 신안시의중학교에서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처음으로 섬에서 개최한 것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환경보전 사례와 전망'을 주제로 기서진 경상국립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질·토양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막고 환경을 지키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강

의했다. 멘토특강 '꿈틀'은 전남 농산어촌 도서 지역 등 교육 취약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과학기술, 진로 설정에 관한 특강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1개 작은 학교와 전남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해 총 18회에 걸쳐 챗 지피티(ChatGPT), 메타버스, 미래 헬스케어 기술 등 과학 분야 및 진로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남도장터,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로 농수축산물 판매 촉진

쇼핑몰 입점 업체 대상

전문가 특강·정산시스템 등 교육

재단법인 남도장터가 지난 18일부터 전남을 남부·북부·서부·동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로 농수축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권역별 교육'에 나섰다.

전남 실정에 맞는 온라인 마케팅 방법과 홍보 방안을 폭넓게 제시해 참여 업체의 온라인 판매 능력 향상을 통한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특강, 관리자(BOS)·정산시스템(ERP) 교육과 남도장터 성공 사례 발표 등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특강에선 김민경 한국디지털진흥원장이 온라인 마케팅, 홍보전략, 브랜딩 등 온라인 판매 촉진을 위한 전문가 교육을 했다.

관리자·정산시스템 교육에선 한근열 ㈜리얼커머스 차장이 시스템 접속 방법, 주문 및 공급처 정보관리, 정산 확인 관리 등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교육했다.

남도장터 성공사례 발표에선 강문원 ㈜모시울



부장이 연계 사업을 통한 매출 증대 및 다양한 온라인 시장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김경호 재단법인 남도장터 대표이사는 "권역별 교육이 남도장터 입점 업체 외에도 농산물 판매를 원하는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권역별 교육'은 지난

18일 해남을 시작으로 25일 나주 다음 달 1일 무안, 8일 순천에서 진행된다. 재단법인 남도장터는 지자체 중 최초로 지난 12월 법인을 설립했으며 지난해 603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해 지자체 쇼핑몰 1위를 차지했다. 5월 가정의 날 한 달간 기존 할인 행사와 함께 전 품목 10% 추가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국제농업박람회, 비즈니스 산업박람회로

사무국-농업기술진흥원 업무협약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은 최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2023년 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개최와 지역 농산업 발전을 위한 '2023 국제농업박람회 공동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홍재(전남도농업기술원장) 전남국제농업박람회 대표이사과 구본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부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2023 국제농업박람회를 비즈니스 산업박람회로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올해로 6회째인 국제농업박람회에 농산업체 제품 판로 지원

과 투자유치를 위한 공동 주관 기관으로 참여해 전남 농산업체 기술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사업 홍보, 민간 우수 기술 보유기업 발굴 및 국유기술 이전 사업에 협력한다.

(재)전남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손을 맞잡은 것은 2023 국제농업박람회가 처음이다. 앞으로 상호 유기적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남지역 농산업 발전 및 원활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나주 '에너지밸리 오픈 이노베이션 데이' 행사

전남테크노파크, 25일 동신대서

(재)전남테크노파크(이하 전남 TP)가 나주시, 동신대, 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밸리 유관 기관과 공동으로 25일 동신대 혁신 융합캠퍼스에서 나주 에너지밸리기업 상생발전 및 혁신성장을 위한 '2023 에너지밸리 오픈이노베이션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병태 나주시장, 오익현 전남TP 원장, 이주희 동신대 총장, 조종래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 백수현 한국전력 상생생태계조정처장, 윤의준 한국에너지공과 총장, 김유신 (사)전남에너지산업협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나주시·전남TP·동신대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가 나주 에너지밸리 상생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밸리 글로벌 기술확보 및 투자유치 지원 협약'을 체결, 에너지밸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기술경쟁력 향상 등이 기대된다. 또 IT업계 세계 15위 기업 세일즈포즈와 동신대가 '글로벌인재양성 지원협약'을 맺고 나주지역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설 예정이다.

에너지밸리 40개 기업과 지원기관 25곳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 세무회계, 연구개발, 지식재산권, 지원정책 등 경영 전반에 걸쳐 관계 전문가, 지원기관, 대학교수가 일대일로 상담하며 해결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내 유수의 투자전문기관들을 초청해 지역기업들의 연구개발 성과와 우수기술, 제품에 대한 투자 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출 방안의 기회도 마련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22개 시군, 인구정책 협력체제 강화

전남도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지난 16일 개최해 생활인구와 복수주소에 등 인구정책 추진 협력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주 개념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생활(관계)인구' 활용 지역활력 증진방안 제안과 '복수주소에 동일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했다. 이어 전남도와 시군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사업 발굴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22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인구위기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인구 늘리기 성과 드러 및 수요자 중심의 인구정책 발굴 필요성에 공감했다.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는 2021년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협의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짜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